



해태그룹의
건강검사를
따라
서

해태

「해태그룹」 자체가

한국 굴지의 재벌기업인 해태제과
공업주식회사. —

각종 과자류와 아이스크림, 음료수
등을 제조하여 국민 식생활에 크나
큰 역할과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해
태 그룹의 건강검사 사업이 바야흐
로 급뿔치를 울리고 있었다.

즉 지난 7월 4일부터 7월15일까지
해태제과 본사를 필두로 산하 기업
회사인 해태상사, 해태관광, 코스코
해태유업, 해태산업, 등 해태 그룹
산하 기업 종사원들의 건강검사가
시작된 것이다.

전국 각지에 산재해 있는 이들 기
업의 현장 사무실을 찾아 우리의 「건
강1호」 검진 버스가 종업원들 건강
을 위해 책경을 하고 있는 것이다.

기자는 서울을 스타트로 시작된
「건강1호」 일정표에 따라 「3천리

를 누비는」 검진 사업에 수행을 하
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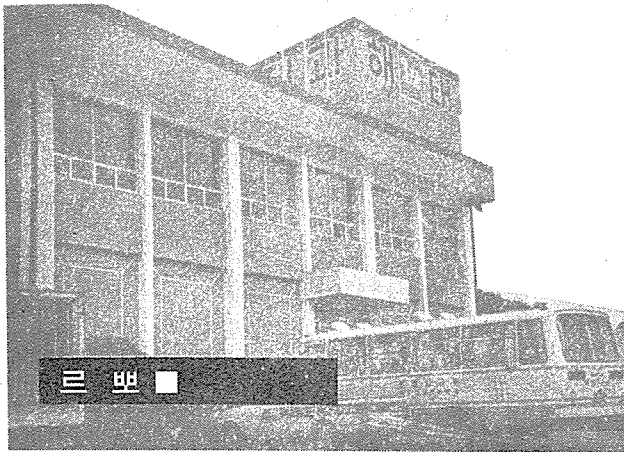
서울, 인천, 안양, 수원, 대전, 여
산, 광주, 광양군의 섬진강, 함안군
의 남강, 부산, 대구를 순회하는 전
국 순회검진 대행진(?)에 참여를
한 것이다.

전종업원의 건강을 위해서 이렇
게 열성적이고도 성의 있는 모범직
장 「해태」는 과연 어떤 직장 분위기
이기에 전사원의 후생복지와 건강증
진에 이토록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
는 기업일까? —

한마디로 말해 『해태 그룹 자체가
건강하다』고 표현하고 싶다.

그들의 社訓에서도 나타났듯이 「正
直하자」라는 매우 좋은 이미지를 풍
기고 있었다.

기자와 同乘하고 검사반을 수행했



르 뵤

해태제과
광주지사와
건강 1호
검진차

// // // // // // // //

건강이 철철넘쳐.....

던 羅彌均 해태그룹 의료보험 조합 대리는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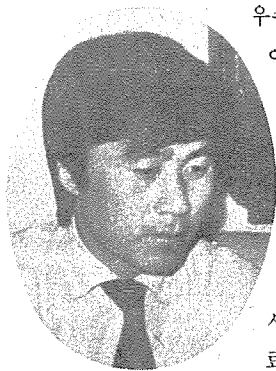
『우리 회사는 故 朴炳圭사장님을 위시하여 閔厚植회장등 창업 4 人의 뜻을 받들어 현 대표이사인 朴建培회장님을 모시고 創意·眞實·協調를 바탕으로 오늘의 해태그룹으로 발전시켜 나오기까지 동고 동락하며 성공할수 있는 신화를 이룩함으로써 모든 한국기업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朴회장님 말씀과 같이 국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보다 나은 식품을 만드는 일은 물론, 주어진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는 일을 생각하고 일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 80,000여 종업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국민건강과 보건향상을 위하여 사명감을 갖고 거듭 정진해 나갈 각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실시하는 건강 검진 사업도 식품회사이기 때문에 특히 사무직보다 기능직들에게 신경을 더 써서 건강에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역설한다.

그리하여 이번 검진스케줄에도 신청자 전체의 70%가 기능직이며 이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은 더욱 크다고 강조하기도 한다.

이번에 실시한 검진 사업에도 해태제과의 관리직 직원 150명 전원이 회사에서 검진비용을 전담하여 수검토록 했고 그외에도 신청자에 한해서는 본인부담으로 전원이 수검토록 했다고 羅대리는 말하고 있었다.

「해태제과」는 기생충사업도 이미 본 궤도에 올라 있어 작년도(82년)만 하더라도 전체 수검자의 70% 이상을 검사토록 하여 건강을 돌보는



우수업체이다.

이번의 건강
검진 사업
만 하더라
도 대상인
원 1,500
명으로 해
태제과 본
사 300명 음
료사업부(여

羅弼均 대리 의도소재)80

명 해태종합상사(수송동)70명, 제과
부평공장 67명, 관광본사(여삼동)10
명, 코스코 27명, 제과 안양공장 106
명, 관광 임진각 영업소37명, 해태
유업 수원본사 103명, 제과 대전지
사 35명, 해태산업 34명, 관광 여산
(礪山)영업소 34명, 관광 정읍영
업소 14명, 제과 광주지사 9명, 관광
섬진강 영업소 16명, 남강영업소 50
명, 제과 부산지사 50명, 제과 대구
영업소 41명등 1,500명 상당이다.

그러면 종업원들의 건강증진 복지
사업을 위해 이렇게 애를 쓰는 해태
그룹 의료보험조합의 인적구성과 복
지 증진사업등은 어떻게 되어 있는
지 알아 보기로 하자.

대표이사에는 朴仁培씨. 그룹의
총무본부장을 겸직하고 있는 朴부장
을 위시하여 7명의 사무원들이 열심
히 뛰고 있다. 羅弼均대리는 이러
게 이야기 하고 있다.

『이번의 건강검진사업을 실시하게

된 동기가 健協의 홍보활동도 컸지
만 朴仁培대표이사가 朴建培회장
제 진언한바가 컸습니다. 언제나 회
장님은 종업원의 건강관리에 관심
이 크기때문에 꽤히 응락하신 것이
지요.

朴회장님의 종업원을 위하는 관리
태도는 다른직장의 추종을 불허합
니다.

여가 선용을 위해서 체력장 시설
(헬스클럽)을 만들고 취미 클럽으로
테니스, 등산, 낚시, 바둑, 꽃꽂이,
조깅회등 다채롭습니다. 돈보다 건
강에 신경을 더 쓴다는 증거지요』

힘주어 이야기하는 羅대리의 말
속에 「건강 1호」의 검진반장 尹永植
과장은 이렇게 덧붙인다.

『해태를 방문했을때 우선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 회사의 분위기를 알
수 있었지요. 첫째 친절히 대해주고
접대가 응송해서 좋았습니다.그러나
가장 크게 느꼈던 점은 「해태 그룹
자체가 건강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입니다. 모든 기업이 건강하다는 느
낌을 갖았을때 그 기업이 성장하고
나라가 부강해지는 것이 아닐까요?

또 한가지는 羅弼均대리가 처음
부터 끝까지 검진반과 함께 탑승, 한
팀이되어 활동을 같이한 점에 큰 의
의를 느낍니다.

처음부터 수검장소및 일정이 정확
하고 행정체계가 질서가 있어 한
치의 빈틈이 없었습니다. 역시 대
기업다운 면모가 있구나를 새삼 느
꼈고 오늘날의 「해태」가 이룩된 동
기를

알것 같았습니다.』

× ×

서울지부 李焯사업과장과 기자는
검진반을 따라 전남 광양군에 소재
한 남해고속도로상의 섬진강 휴게소
에 다달았다. 해태 관광소속의 이
휴게소는 마침 7월 1일부터 8월20일
까지 친절봉사장조기간을 설정하고
있었다. 종사원 아가씨들의 친절한
안내를 받으면서 늦은 조반을 들때
역시 「해태」의 분위기는 여기에도
있구나를 느끼게 해준다.

검사인원 17명, 100%수검율이다.
申光熙 관리소 주임은 이렇게 말
하고 있었다.

『우리 해태관광 申正次 사장님은
첫째 담배 안피우기, 조강, 베드민턴
등을 권장하고 계십니다. 건강에 여
간 신경을 써주시길 않아요. 고마운
마음뿐입니다.』

예전엔 해태(김)의 산지로도 유명
했던 이곳은 지금은 부산,대구,목포,마
산, 광주의 교통 중심지로서 중요하
며 특히 여름철엔 남해관광 한려수
도의 관광지로서 더욱 진가가 발휘
된단다.

재미있는것은 光州방면으로 가는
휴게소는 전남에, 마산쪽으로 가는
휴게소는 경남에 속해있는 섬진강
휴게소이다.

羅대리는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
었다.

『이번 검사자중 종업원인 차모(39



건강이요에서 검사받기 위해 줄서있다.



건강이요 내부에서 심전도 검사광경

세) 여인이 검사를 받았는데 심방작
동불능자로 통보받아 응급으로 병원
에 입원 100% 치료를 조기에 받을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검사전 모종합병원에서 수술통보
를 받았으나 차일 피일 미루다 이번
검사로 인해 치료를 받았다는데 큰
의의를 느낄 수 있지요.

내년도에는 금년의 검사 결과를
참고삼아 전사원이 검사에 임할 작
정입니다.』

羅彌均대리의 말에서 기자는 역
시 국민보건을 위하는 우리의 활동
이 이런데서 더욱 의의를 찾았구나
를 생각하면서 한층 더 국민건강을
위해서 노력하자는 각오를 새로히
해보기도 했다.